



올 2승 뿐? QS 7경기!

〈퀄리티 스타트〉

임기영

KIA 마운드 '버팀목' 임기영 오늘 3승 도전

브룩스와 함께 팀 원투펀치 역할
38이닝 볼넷 2개 ... 안정된 피칭



비로 임기영의 시즌 3승 도전이 7일로 미뤄졌다. 6일 한화생명아글스파크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이날 선발로 예고됐던 KIA 임기영과 한화 김형은 등판 날짜를 하루 밀어 7일 맞대결을 벌인다.

브룩스가 빠진 지난 6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임기영은 시즌 14번째 선발 등판에 나서 3승을 노리게 된다.

올 시즌 임기영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멧돼지를 대신해 브룩스와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뒤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끊는 등 13번의 등판에서 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선발로서 임무를 완수했다.

이는 12경기에서 8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장식한 브룩스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이닝도 브룩스(73이닝)에 이어 두 번째(72.1이닝)로 많이 소화했다. 볼넷은 브룩스(16개) 다음으로 적은 17개를 허용했다.

특히 5월 22일 삼성전(7이닝 2실점)을 시작으로 6월 23일 KT전(6이닝 1실점)까지 6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임기영은 꾸준한 피칭으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임기영은 이 6경기(38이닝)에서 단 2개의 볼넷만 허용하는 안정된 피칭을 선보이며, 평균자책점을 2.61로 묶었다.

6월 23일에는 KT 타자들을 상대로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8개)을 새로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임기영은 2승을 수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던 5월 28일 KT전, 6월 4일 LG전에서는 각각 장현식, 이승재의 불펜세이브가 기록되면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임기영은 이 두 경기에서 팀이 이긴 것에 만족해야 했다.

임기영은 지난 29일 NC와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퀄리티스타트 행진을 마감했다.

이날 나성범과 노진혁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시즌 첫 패가 기록됐던 4월 10일 NC전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멀티포를 허용했다.

아쉽게 6월을 마무리했지만, 부담 많은 6월을 보낸 임기영에게 브룩스와 비가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브룩스가 위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위기의 선발진을 지탱하던 임기영의 부담이 줄었다. 또 비로 경기가 미뤄지면서 넉넉히 휴식을 취하고 8일 만에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최형우가 돌아온 타선의 상승세도 임기영에게는 반갑다.

임기영의 3승을 위한 키워드는 역시 '볼넷'과 '체인지업'이다.

시즌 초반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던 임기영은 볼넷을 줄이면서 이닝을 늘렸다. 또 임기영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다.

재충전을 끝낸 임기영이 7일 첫 등판에서 한화를 상대로 팀의 4연승을 이끄는 3승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공격수 펠리페 가고 조나탄 왔다

펠리페를 대신해 또 다른 'K리그 1·2부 통합 득점왕' 조나탄(사진)이 광주FC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는 6일 2015시즌 K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나탄(30·Johnathan Vilela)을 중국 갑급리그(2부) 청두 통청에서 6개월간 임대 영입하고, 펠리페를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맞트레이드를 진행했다.

184cm·74kg의 탄탄한 체격을 지닌 조나탄은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최전방 공격수다.

위치와 각도,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득점할 수 있는 결정력이 뛰어나고 승부욕도 강해 '슈퍼 크랙'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4년 대구FC의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오른 조나탄은 첫 해 14골 2도움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고, 2015시즌에는 26골을 몰아치면서 2부 리그 득점왕에도 등극했다. 2016시즌에는 브라질 스포르츠 헤시피(페르남부쿠주 1부) 소속으로 후반기 수월상승으로 임대돼 7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만들었고, FA컵 우승에도 기여했다.



2017시즌에는 22골을 기록하며 K리그 최초 '1·2부리그 득점왕' 타이틀도 차지했다.

조나탄은 K리그에서 4시즌을 보내며 111경기에서 나와 72골 13도움을 기록했다. 중국을 거쳐 4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조나탄은 "K리그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며 "수원 시절 김중우, 박광선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다른 동료들과도 빨리 호흡을 맞춰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한 조나탄은 목포 전지훈련을 통해 광주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18시즌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했던 펠리페는 서정원 감독이 있는 청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경남과 무승부 ... 승점 2점 차 3위

전남드래곤즈가 경남FC와의 '수중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19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세 경기 연속 무패행진은 이어졌지만 '1위 경쟁자' 김천상무와 FC안양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1·2위와 승점 2점 차 3위가 됐다.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개된 경기, 골키퍼 김다솔이 전반전 여러 차례 선방을 펼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남은 0-0으로 맞선 후반 10분 '이적생' 김병오를 투입해 골사냥에 나섰다.

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김병오가 세 동료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중원에서 발로텔리가 공을 뺏아 김병오에게 패스를 했다.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몰고 전진한 김병오가 페널티박스 안에 진입한 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장순혁에게 골을 내줬다.

장순혁의 매서운 슈팅이 나왔지만 상대 골키퍼 황성민의 좋은 수비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샀다.

이후에도 몇 차례 전남의 공세가 무위로 끝나면서 0-0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전남의 무실점 경기에 기여한 수비수 김태현이 19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이마르 매직' 브라질 코파 결승 올랐다

파케타 결승골 페루 1-0 꺾어

'삼바축구' 브라질이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트린 루카스 파케타의 결정력을 앞세워 페루를 꺾고 2021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선착했다.

브라질은 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니우통 산투스 올림피쿠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루와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35분 터진 파케타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브라질은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만나 4-0 대승을 거뒀던 페루와 준결승전에서 또다시 만나 승리를 따냈다.

통산 10회 우승과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브라질은 네이마르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앞세워 파이브백(5-back)으로 두겹게 수비벽을 쌓은 페루를 공략했다.

전반 35분 네이마르와 파케타가 결승골을 합작했다.

역습 과정에서 페루 왼쪽 뒷공간으로 파고든 네이마르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뒤로 볼을 내주자 파케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슛으로 골그물을 흔들었다.

파케타는 2경기 연속 결승골을 책임지며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김광현 7이닝 무실점 '인생投'

ML 최강 SF전 시즌 3승 피안타 3·볼넷 2개 호투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을 상대로 최고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3번째 승리를 수확했다.

김광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SF)와 벌인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시즌 최다인 7이닝을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89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와 볼넷은 각각 3개, 2개만 내주고 실점을 막았다. 삼진은 2개 잡아냈다.

시즌 두 번째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 투구)를 기록한 김광현은 평균자책점을 3.79에서 3.39로 낮췄다.

지난해 9월 15일 밀워키 브루어스 방문경기에서

서 87구를 던지며 7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것과 더불어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구다. 그러나 밀워키전에서는 팀이 1-2로 패해 승리를 놓쳤다.

김광현은 2-0으로 앞선 8회초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다.

이후 타선과 볼펜이 힘을 내면서 샌프란시스코는 5-3으로 승리했고, 김광현은 시즌 3승(5패)째를 수확했다.

또 지난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또 2경기 연속으로 승리투수가 된 것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했다. 샌프란시스코는 3연승을 멈췄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이 샌프란시스코와 맞붙은 것은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는 팀이다. 5일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에

서 가장 높은 승률(0.639)을 자랑한다. 이날 패배에도 샌프란시스코는 빅리그 최고 승률(0.631) 팀 자리를 유지했다.

김광현은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2017~2019년)에서 뛰었던 샌프란시스코 4번 타자 다린 러프에게 초구(43구째) 볼을 던진 뒤 휘청였다. 통증을 느낀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마이클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 등은 마운드에서 김광현과 상의했고, 김광현은 몇 차례 연습 투구 뒤 괜찮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김광현은 러프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 브랜던 크로퍼드와 제일린 데이비스를 뜯곤,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김광현은 5회말에도 등판, 6개의 공으로 땅볼 3개를 잡아내는 패투로 부상 우려를 씻었다. 김광현은 6회말을 5개의 공으로 끝냈다. 2-0으로 앞선 7회말 김광현은 선두타자 러프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던졌지만, 후속 타자 3명을 모두 땅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막았다.

/연합뉴스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 첫 이닝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33)이 역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발 등판해 시즌 최다인 7이닝 동안 89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에 무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